

76세에 6천m급 高峰등정한 원로과학기술인 朴 禧 善 前국민대 대학원장 “참선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76세의 나이로 6천m급
히말라야 고봉을
산소통도 없이 정복한
원로과학기술인 박희선옹.
「세계 최고령 최고지 점령」의
신기록을 세운 박옹은
“이번 쾌거는 오직 참선의
힘으로 해냈다”고 말한다.

국내 산악인들도 반신반의

“정말 그 나이에 올랐을까?”

“그런 고령에 산소통도 없이 어떻게 히말라야산맥의 6천m급에 오를 수가 있던 말인가?”

지난 10월 말 TV를 통해 원로과학기술인 박희선박사(76)가 한국인으로서는 물론 세계 최고령 기록으로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산맥의 해발 6,654m의 메라피크 봉을 등정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일반인, 산악인들이 한번씩 한 말이다. 그러나 박옹의 등정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의 건강관리를 평소 눈여겨 보아온 지인들에게는 수궁이 가는 일이었다.

귀국한 후 10월27일자로 네팔산악협회로부터 공식 인증서가 도착했고 국내 언론계와 산악관련잡지에서도 이를 보도함으로써

단지 고령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정적이던 시선들이 ‘경이적 성공’으로 바뀌게 됐다.

70대 중반이라는 나이와 6천m급 고봉등정이라는 상관관계를 고려해 볼 때 박옹의 이번 쾌거는 세계 최고령 최고도달지점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다. 박옹의 이번 등정은 물론 기록을 염두에 둔 등반이 아니라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옹이 오른 네팔 히말라야의 콤부지역에 솟아있는 해발 6,654m의 메라피크(MERA PEAK)는 에베레스트봉에 비하면 하급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고산등반의 기초가 전혀 없거나 워킹위주의 산행으로만 다져진 실력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히말라야산군의 하나임에 틀림없다는 것이 산악인들의 일반적 견해다.

해발이 6,000m를 넘으면 평지보다 기압이나 산소량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고산등반에 나서는 산악인들은 대개 등반도중 고소적응을 위해 두어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고도를 높여 나가는게 일반적인 등반관행이다. 그러나 박옹의 등반일정에는 등정할 때까지 고소적응을 위한 하산이 없었다. 지난 10월7일 루크라(2,800m)에 도착한 박옹은 이날 추탕가(3,400m)로 올라 이튿날 틀리카르카(3,995m)까지 진출한 후 동행이 고소증을 호소해 이곳에서 하루를 쉬 후 10월10일 닥타라(4,500m)까지 올랐다.

여기서 탕낙(3,700m)을 거쳐 파탕(3,350m)까지 내려선 후 다시 10월13일

▼MERA PEAK 정상에 오른 박희선박사의 모습



메라피크 베이스캠프에 도착, 바로 다음 날 등반에 나서 메라라(5,500m)까지 올라갔다. 일행중 한명이 메라라로 오르던 중 고소증으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하산, 그러나 차용은 꾸준히 세르파 소남과 함께 전진을 계속했다. 고산용 피켈과 아이젠을 처음 사용해 본 차용에게 얼음처럼 굳은 눈은 그의 팔다리 힘을 가혹하게 빼앗았다. 밤에는 계속 강풍이 불어대며 작은 눈사태도 산벽에 부딪치면서 공명돼 크게 울렸지만 이때까지도 고소증세는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무아지경 속에서도 생존 감사

10월15일 밤 천막 속에서 참선으로 몸과 마음을 다잡았다. 10월16일 아침 동행했던 독일인 30대 2명과 세르파 제타가 기권하고 말았다. “계속 얼음을 깨가면서 세르파 소남과 오르기 시작했죠. 산소통의 도움없이 그야말로 무아지경 속에서 서너번의 죽음을 예감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통일로 버텨지요”

동행한 세르파 소남이 영하 20도의 강풍 속에서 차용을 안심시키려는데 “밤에 강풍이 불면 다음날은 보통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캠프를 출발했다. 세르파 소남이 차용의 의지를 확인하려는듯 계속 올라도 관찮겠느냐고 물었다. 매서운 강풍이 눈보라를 일으키며 차용의 몸을 뒤흔들었다. 힘이 자꾸 빠지고 몸이 얼어와 괜히 고집을 부렸구나 싶기도 했다.

“메라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제사를 지내려고 소주와 오징어 세마리를 갖고 왔습니다” 차용은 엄청난 고행중에서도 순간순간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또 고비고비마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희열을 맛보았다고 한다. 10월 16일 11시30분 드디어 메라피크 정상에

세르파 소남과 함께 섰다. 올랐다는 기쁨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뭔가가 도와주는 힘이 있음을 느꼈지요. 물과 공기가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때는 정말 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차용이 지난 해에 이어 또 다시 등정을 결심했을때 가족들은 물론 가까운 친구나 산악단체에서도 크게 우려했으나 차용 자신은 스스로에게 가능한 일이라고 다짐했었다. 물론 이러한 자신감의 저변에는 널리 알려진대로 차용의 참선이 가져다준 정신력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차용이 특별한 훈련이나 부단없이 고소에 적응이 잘 되는 체질이라는 것을 안 것은 지난해 에베레스트 BC 트레킹에서였다. 이때 같이 간 단원들 대부분이 페리체(4,300m) 이상을 오르지 못했는데 차용은 너끈히 칼라파타르(5,545m)까지 다녀왔기 때문.

차용의 신기록에 대한 도전은 좀 별난 동기에서 비롯됐다. 육체적인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히말라야 등반이 아니라 정신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만 50세때인 1969년부터 시작한 참선을 통해 정신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의 건강비결이다. 그는 참선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적인 건강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다.

“참선의 위력을 이번에 실감, 확인했다”고 말한 차용이 참선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 철학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참선방 열고 후학들 지도

만 50세때 그는 서울공대 금속공학과 의 교수였다. 일제시대 일본 東北제대 금속공학과를 나온 당시로서도 그는 몇안

되는 약관의 정통 금속공학자로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러나 50세의 나이로 다시 박사학위에 도전하기 위해 도일했으나 공부는 어렵기만 했다. 그때 신문광고에서 선(禪)이란 낱말을 보았고 그야말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선과 만났다. 95세의 경산(耕山)스님 문하에서 참선을 배우고 정신과 육체에 큰 변화를 체험했다. 이때 경춘(耕春)이라는 법명도 받았다고 한다. 이순을 넘은 나이에 일본에서 참선을 통한 새삶을 얻은 것이다.

과학기술인으로서 그의 중요연구의 핵심은 거의 참선중에 성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용은 참선중에 수많은 직감을 받는다. 그래서 참선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노트와 펜을 옆에 준비한다는 것. 어떤 아이디어가 번개같이 뇌리에 번뜩일 때는 그 즉시 참선노트에 옮긴다. 이렇게 해서 쌓여진 그의 참선노트가 10여권을 넘는다.

정년퇴직으로 강단을 떠난후 차용은 철저히 참선을 보급하고 실천하는 일에 빠져 있다. 뇌파실험 등을 통해 참선상태를 과학적으로 구명하는데 전념했다.

88년에는 전자파 방사를 이용, 인간의 뇌파를 참선상태로 변화하게 하는 「슈퍼아이큐」를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7년 전부터는 자신의 집에 참선방을 내고 「수요회」를 열었는데 1백여명의 회원이 수요일이면 모여 차용이 스스로 터득한 피라미드식 참선법 수련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꼽밀 주인공 찾아라」라는 건강장수 참선법 소개서를 내기도 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50분간 참선한 후 아침을 들고 바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설 원로 과학기술자문단 사무실로 출근. 부단장 겸 간사장으로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요즘 차용의 일과다. <健>